



진도 신비의 바닷길 체험하듯...미디어아트로 만난다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200여m 해안 도로따라
뽕할머니 전설, 소망·사랑 주제로 저녁 7시 시작

국가지정 명승 제9호인 진도 신비의 바닷길에 첨단기술과 만나 신기술 융합 콘텐츠로 다시 태어난다. 진도군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는 제43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기간 동안 최신 미디어 아트 기술로 빛과 영상을

활용한 신비의 바닷길 미디어아트를 운영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신비의 바닷길 미디어아트는 뽕할머니의 전설, 소망과 사랑 등의 주제로 축제 기간 동안 매일 저녁 7시에 뽕할머니 동상에서 200여m의 해안 도로를 따라 펼쳐질 예정이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을 기하학적인 점·곡선·면의 디자인으로 표현하고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물과 빛의 순환을 담은 미디어아트는 실제로 진도 신비의 바닷길이 갈라지는 효과 등을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또 형형색색 다채로운 색깔을 통해 신비로운 자연 경관인 진도 신비의 바닷길을 이색적이면서도 친근하게 표현해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최근 관광에 접목된 새로운 문화예술 트렌드인 체험형 미디어아트를 통해 진도 신

비의 바닷길 축제의 의미를 이어가면서 야간 콘텐츠를 강화해 빛과 영상으로 신비의 바닷길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전국에서 손꼽히는 진도 민속·문화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야간 콘텐츠를 강화해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 축제 기간 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걸맞는 디지털 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시각 콘텐츠인 미디어아트

를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 도입했다"며 "진도군이 보유하고 있는 천연자원과 민속·문화자원을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로 축제 기간 동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4월 20일부터 ▲바닷길 만남 한마당 ▲북놀이 퍼레이드 ▲소망의 조약돌 바닷길 체험 ▲무형문화재 스탬프 랠리 체험 등 총 70여종의 전시·공연·체험 행사 등이 준비되어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군, 직원 근무여건 개선 위한 휴게시설 조성

장흥군은 적절한 휴식으로 업무의 집중도를 높여 더 나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직원 휴게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직원 휴게공간은 기존 유휴공간을 4월부터 6월까지 리모델링하여 개소할 예정이다. 1977년 준공된 현 장흥군 청사는 건물의 노후와 업무공간 협소 등으로 그 동안 별도 직원

휴게공간이 없었다. 장흥군은 2022년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선정에 따른 도비 보조금 1억 원으로 청사 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휴게실로 조성해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높일 예정이다. 휴게실은 직원들이 편하게 앉아 동료 직원과 가벼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과 숙직·

비상근무 등으로 휴식이 필요한 직원들을 위한 수면공간을 분리하여 조성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잠간의 휴식을 통해 직원간의 유대감을 조성 함은 물론 건강과 행복을 찾고 편안한 마음에서 떠오른 창의적인 생각이 군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 제공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 기자

"반갑다! 강진 마랑놀토수산물시장"

LED 바다분수·에어바운스·가요 경연대회 등 이색 즐길거리 풍성

강진의 대표 관광명소 중 하나인 마랑놀토수산물시장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주말 관광객 유혹에 나섰다. 11일 강진군에 따르면 제7회 마랑놀토수산물시장(이하 마랑놀토)이 청정 마랑항에서 오는 4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30회에 걸쳐 열린다. 지난 2015년 5월 첫 개장 이후 지난해까지 99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을 정도로 강진군의 대표 효자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해 온 마랑놀토가 민선 8기 들어 더욱 다양한 콘텐츠로 준비된다.

우선 110m 길이의 화려한 LED 바다 분수와 미디어 파사드, 에어바운스 놀이기구 등 기존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추가했으며, 가요 경연대회 '노래가 좋단마랑' 프로그램도 신규 편성했다. 월별 예선을 거치고 10월 28일 최종 결선을 통해 각 상의 주인공을 가르며, 최고 2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마랑놀토 개장식은 22일 오후 3시 시장 내 특설무대에서 열리며, '장구의 신' 박서진, 유지나 등과 함께하는 폭포 MBC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현장 녹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해남군, 해안가 환경지키는 페스티로폼 감용기 '짱짱'

하루 1천개 페스티로폼 부표 압축, 재활용·재판매로 일석삼조 효과



해남군이 운영하는 어업용 페스티로폼 감용기가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 세외수입 확보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며 호응을 얻고 있다. 감용기는 관내 연안 9개면 어촌계를 순회 운행하며, 연간 35만여개의 페스티로폼 부표를 처리하고 있다. 1일 페스티로폼 부표 1,000여 개를 압축해 성형 처리물 250kg을 생산함으로써 연간 5억 원에 달하는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된 처리물은 재판매출 600만원의 세외수입도 올리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 신규 감용기로 교체할 예정으로 기존 처리 용량의 2배인 하루 2,000여개의 부표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